

# 사 설

## '국민의 정부' 기대

25일 취임하는 김대중대통령에게서는 국민의 기대는 대단하다. 국민의 뜻으로 평화적 정권교체의 꿈을 실현했고 오랜 정치경륜을 쌓아온 준비된 대통령이기에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던 날부터 지금까지 두달이 넘도록 무엇을 했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불을 끄는 데 정신없이 뛰어 다녔다. 당선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지난 5년간 국정을 담당했던 김영삼정권이 쌓은 업보를 물려받을 준비를 했다. 이제 새 대통령이 되었지만 어려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의환위기로 시작된 경제대란을 극복해야 한다. 세계 자본주의의 거대한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실정(失政)을 거듭한 김영삼정권의 무능과 부패의 유산을 청산할 과제가 급선무이다.

김대중대통령은 이 어려운 국난을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 그가 앞으로 5년간 국정의 기본방향과 운영 지침으로 삼을 100대 과제가 대통령 직인수위원회 명의로 발표되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무엇보다도 당면한 경제위기극복이 새정권의 제1차적 과제의 핵심이 된다. 아울러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의 통일을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일도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나라의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현실극복이 우선이다. 그러나 심호흡을 하고 앞을 조금 멀리 내다보면 밝은 미래가 있다. 21세기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이 넘치는 국가지도를 강력히 발휘하기 바란다. 취임하는 날부터 퇴임하는 날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갈망한다.

역대 대통령들과는 달리 퇴임 후에도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역대 정권에 의해 조성된 지역갈등, 노사갈등, 종교갈등 등의 매듭을 풀고 화합과

화해의 새 시대를 열어줄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다.

이러한 희망과 기대속에서 우리는 김대중대통령의 향후 종교·문화 정책과 관련하여 몇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우선 특정종교 편향정책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었으면 한다. 지난 5년간 김영삼정권이 저지른 과오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특정종교의 편을 들거나 불교를 비하, 탄압하는 정책이었다. 취임직후에 있었던 국방부에 배사건부터 시작해 교과서 왜곡사건 등 각종 불교탄압정책으로 불교계와 많은 갈등대립을 겪었다.

그리고 유의해야 할 점이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유산을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일이다. 과거정권이 서양문화 우대와 개발우선 정책으로 민족문화가 파괴되고 말살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아 왔다. 이는 사회전반의 가치관에 혼란이 오고 국론분열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불교문화재를 비롯하여 우리 문화유산이 잘 지켜질 수 있는 문화예술행정체제를 펴 나가야 한다. 전통문화재의 보수,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배려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또한 각종 불교관계악법의 개폐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공원관계법령에 의해 문제되었던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는 대통령선거공약사항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이 방침을 확인한 바와 같이 곧바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등 지금까지 불교계가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늘 귀를 열어 놓고 민심을 읽어 진정된 '국민의 정부'를 이끌어 가길 김대중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충심으로 바란다.

# 해인사 인근지방도 착공 연기

## 부산 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 부실 인정 조계종·환경단체·주민등 '백지화' 요구

건설교통부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이 3월 착공예정이었던 해인사 인근 국가지리지방도로 59호선(가야~봉산간) 2차로 개설공사가 당분간 연기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19일 "18일 가야면사무소에서 열린 주민 공청회에서 기존의 환경영향 평가가 부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만큼 부실 부분을 보완한 뒤 다시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관리청의 한 관계자는 또 "차제에 사업내용의 수정 변경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59호선 도로 개설의 계획이 전면 수정되거나 백지화 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건설교통부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이 3월 착공예정이었던 해인사 인근 국가지리지방도로 59호선(가야~봉산간) 2차로 개설공사가 당분간 연기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19일 "18일 가야면사무소에서 열린 주민 공청회에서 기존의 환경영향 평가가 부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만큼 부실 부분을 보완한 뒤 다시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관리청의 한 관계자는 또 "차제에 사업내용의 수정 변경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59호선 도로 개설의 계획이 전면 수정되거나 백지화 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해인사 인근 지방도로 59호선 건설을 반대하는 교계와 환경단체들은 18일 가야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공사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 조계종 '본·말사 포교규정' 재추진 전국사찰 포살법회·신도교육 정례화

### "사문화 우려" 시각도

사찰의 포교의무를 세부적으로 명시한 본·말사 포교규정 제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조계종포교규정(원장 성타)은 17일 열린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에서 '본사 포교규정(안)'과 '사찰 포교규정(안)'을 제출, 논의했다.

포교원이 제출한 규정(안)에 따르면, 본사의 경우 △포교시설의 설치와 활동 △청소년 및 청소년 교화 △포교교역에 대한 지원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포교국장의 신 본보장도 의무화했다.

또 본사예산의 10% 이상을 포교예산으로 책정해야 하며, 포교예산은 △포교국장, 상임포교사의 보시 및 활동비 △포

교사실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포교 포교활동 지원비 △포교 신행조직 운영 지원비로 명시하고 △포교예산의 타용도 전용을 금지하고 있다.

'사찰 포교규정(안)'에는 모든 사찰의 신도교육 및 포살법회의 정기적 실시, 포교실적을 주지 인사에 반영키로 했다.

포교원은 규정(안)을 총무원 기획실과 논의한 후 총무원회의에 상정, 규정으로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규정은 중령의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96년에도 본·말사 포교규정 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유아무야했던 점으로 미본보장도 의무화했다.

또 본사예산의 10% 이상을 포교예산으로 책정해야 하며, 포교예산은 △포교국장, 상임포교사의 보시 및 활동비 △포

## 조계종 올 예산 10% 감축운영 본사주지회의서 밝혀

조계종은 17일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금년 중단 예산을 10%절감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날 회의에서 금년 중무계획을 밝히며 "종무원의 임금과 일반 업무추진비, 사업비 보조금등 전반에 걸친 10% 절감 운용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IMF 상황에 따른 사찰의 영향정도는 봉축행사 이후 실태조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무원은 회의에서 금년도 봉축행사 계획과 선학원 대책문제, 경제살리기 동참 방안, 사찰환경 포럼 안내, 사미(니) 위계화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나오고 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포교국장은 "포교에 관심없는 본사의 경우는 포교예산 책정도 없는 현실에서 규정으로 10% 이상 포교예산을 책정한다고 해서 현실성이 있겠느냐"며 규정을 제정하더라도 사문화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 문화관광부로 변경 정부, 문체부 조직 개편

17일 확정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문화체육부가 문화관광부로 새 문체를 맡게된다. 해외공보 신문·잡지 및 방송업무에 관한 문화관광부는 국립극장, 지방박물관 등을 민간 지방자치단체로 위탁한다. 조직체계는 1차관보 2실6국 1외국으로 조정됐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개편과 함께 2천4백18명에서 6백96명인 감소된 1천9백22명으로 인력도 감축됐다.

## "지방박물관 지자체 이관반대" 고고학회 등 13개단체 성명... "관리부실 불보듯"

18일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가 발표한 문화체육부의 문화관광부 개편안 중 '국립지방박물관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다'는 방안에 대한 반대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고고학회(회장 김충철), 한국선사고고학회(회장 임효재), 한국박물관협회(회장 허동화) 등 13개 관련단체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국립지방박물관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은 각 지방박물관 사이의 유기적인 유물관리체계의 붕괴를 초래, 지방문화재 보호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물관 관련사업이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현안사업에 밀려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으며,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에 비춰볼 때 박물관 운영이 불능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앙박물관 관계자도 "현행 법상 출토된 모든 문화재는 국고로 귀속되며, 그 관리는 국립박물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전제된 뒤 "지방박물관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면 그곳의 유물들을 모두 중앙박물관으로 반환해야 하므로 각 지방박물관은 상설전시 운영이 불가능해지며 중앙박물관은 유물보관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만평

# 현대만평



사람잡는 해병

737-8881

## 연꽃마을 무료직업소개소 개설

### 교계 처음... 간병인등 유료봉사 활성화될듯

#### 불자연도 개소 준비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이 교계에서는 처음으로 불자들의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을 도와주는 '연꽃마을 무료직업소개소' (소장 강태운·인터뷰 4면)를 개설했다. 지난 9일 서울시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은 연꽃마을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개소식을 갖고 무료 취업알선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무료직업소개소 개설은 불교 유료간병활동의 공신

력을 갖게 하는 등 구인구직자간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게 돼 불자인력의 활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무료직업소개소는 기독교에선 이미 80여개의 소개소를 운영, 기독교간병활동 등 유료봉사활동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 왔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민간직업소개소는 유료 1천4백56개소, 무료를 82개소로

알려지고 있으며 불교자원봉사 연합회(회장 성덕) 등 복지단체들도 개소를 서두르고 있다.

연꽃마을은 직업소개소를 매년 4~5회 실시해 오고 있는 주부 및 중·고령자 취업대비 교육훈련과 연계하여 다양한 취업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구인구직정보를 컴퓨터통신망을 구축, 충분한 인력정보를 확보해 불교계의 대표적인 무료직업소개소로 활성화 시켜 나갈 방침이다. (02)363-7884

**고침** 162호 3면 서용스님 법어중 '微'는 '微'로, '박'은 '귀'로, 원담스님 법어중 '微'는 '微'로 바로잡습니다.

# 고령산 도솔암 중창불사 권선문



주지 성조

중창불사는 불자님께 소승은 작년 3월 조계종 25교구 말사인 도솔암으로 주지 임명받아 수행 정진중입니다. 불조의 비명을 이어온지 어언 30여년, 이제 이 도솔암에서 마지막 수행정진을 발원하였습니다. 파주 고령산 도솔암은 드러나지 않은 명찰 기도도량으로 300여년동안 많은 선사들의 수행정진 내력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 1차 불사 개요 ●
- 요사채 1동 - 해체중창불사
- 대 들 보 600만원
- 상 량 대 400만원
- 기 둥 150만원
- 주 촛 돌 100만원
- 서 까 래 30만원 (지년당고에 1만원으로 잘못 기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 와 10개 7만원
- 기 타 1만원
- 은 마 인 번 호 우체국 011742-0101242 (예금주: 경현웅)
- 농 협 021-02-261275 (예금주: 경현웅)
- ▶ 분할 입금 가능!

일찍이 백용성 조사께서 19세에 견도하시고 혜능선사님 스승으로 서원한 도량이며, 6.25전쟁 이후에는 도형선사께서 정진하시며 중창불사를 이루기도 하셨습니다. 그후로 영험있는 산신기도도량으로 많은 불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고찰인 관계로 해라해 감을 어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은 수도생활기간을 두고 도솔암 가람중창 중흥불사를 생애 마지막 기회로 알고 불조의 높고 높은 뜻을 받들어 가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불사를 계획하며 불자님들의 무루 동참을 기원하오니 어려움을 극복하는 복덕 자비 지혜를 심는 계기가 되어 만민의 복전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나주시이본사 석가모니불

불기 2542년 무인년 1월

대한불교조계종 고령산 도솔암 住持 景性 昭(성조) 합장  
경기 파주시 광탄면 영장2리 산 50의 4 전화: 0348-942-7703 / 호출: 015-345-5158